

해외 ICT 표준화 동향

TTA 표준기획부

2016년 6월

(2016.5.12. ~ 2016.6.14.)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게시물 보기 :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목 차

I. 국제 표준화 기구

- ▷ ITU, 2016년 세계 규제자 심포지엄(GSR) 개최
- ▷ ITU/UNECE, 스마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플랫폼 착수

II. 지역 표준화 기구

1. 미국

- ▷ ANSI-ASQ/NAME, 인증 프로그램 관리 관련 협력 체결

2. 유럽

- ▷ ETSI, 오픈소스 MANO 릴리즈0 발표
- ▷ ETSI, 모바일&방송 융합 산업규격그룹(MBC ISG) 신설
- ▷ ETSI, 2016 보안위크(Security Week) 개최
- ▷ ETSI, EU 무선설비규칙(REG) 관련 유럽조화표준(EN) 제정

3. 중국

- ▷ 중국, 과학기술 평가기준 표준화 작업반 발족
- ▷ 2016년 중-영 표준화 합작위원회 협력 체결
- ▷ CCSA, 보안, 안전 관련 '기술 인터페이스 표준 특별 태스크포스(ST6)' 신설
- ▷ CCSA, 제16차 광네트워크 및 FTTH 세미나 참여

III. 기타 사실 표준화 기구

- ▷ IEEE, YANG 데이터모델 연구반(SG) 신설
- ▷ IEEE 802.19™, 무선 자동차 공존 SG 신설
- ▷ 블루투스SIG, 차세대 무선표준 '블루투스5' 발표

IV. 전문가 활동



I. 국제 표준화 기구

■ ITU, 2016년 세계 규제자 심포지엄(GSR) 개최

2016년 5월 11일~14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2016년 ITU 세계 규제자 심포지엄(GSR-16)이 개최되었다. 본 심포지엄은 '스마트 사회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주제 하에 인공지능, IoT 및 M2M 통신, 신규 디지털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디지털 기업가 정신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

☞ http://www.itu.int/net/pressoffice/press_releases/2016/CM07.aspx#.V0uQhJGLSUI

■ ITU/UNECE, 스마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플랫폼 착수

ITU와 UNECE는 최근 스마트 지속가능한 도시 연합(U4SSC, United for Smart Sustainable Cities)으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신설했다. U4SSC는 스마트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보장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촉매 역할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11개의 목표 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도시와 주민의 거주지가 포괄적이고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하도록 만들

☞ http://www.itu.int/net/pressoffice/press_releases/2016/CM10.aspx#.V1DMZJGLSUI

II. 지역 표준화 기구

1. 미국

■ ANSI-ASQ/NAME, 인증 프로그램 관리 관련 협력 체결

2016년 5월 13일, ANSI-ASQ 국가인증위원회(ANAB)와 국가검시관협회(NAME)는 ANAB가 NAME을 대신하여 NAME의 인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다. 'ANAB-NAME 얼라이언스'라는 명칭으로 ISO/IEC 17020와 NAME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NAME 검사관 인증을 위한 평가가 수행될 예정이다.

☞ http://www.ansi.org/news_publications/news_story.aspx?menuid=7&articleid=3f009d53-dd6c-4380-a0a6-47bf36cc1c46



2. 유럽

■ ETSI, 오픈소스 MANO 릴리즈0 발표

2016년 5월 26일, ETSI 오픈소스 MANO(OSM) 이니셔티브¹⁾는 릴리즈0 코드 패키지 상용화를 발표했다. OSM 릴리즈0은 텔레포니카(Telefonica), RIFT.io, 캐노니컬(Canonical) 및 기타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시드 코드(seed code)를 실행코드(running code)의 문서화된 패키지로 통합한 것이다.



ETSI OSM은 신속한 개발과 전달을 위해 등급 최고의 오픈소스 워크 플로우(workflows)와 툴을 이용하여 ETSI 오픈소스 네트워크기능가상화(NFV)²⁾ 관리와 오케스트레이션(MANO, Management and Orchestration)³⁾을 제공할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OSM은 ETSI NFV의 진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된 NFV MANO 참조 구현을 제공하며,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저렴하게 NFV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NFV 솔루션 업체 생태계를 유지시킬 예정이다.

ETSI OSM은 2016년 2월 개최된 세계 이동통신 산업전시회인 Mobile World Congress(MWC)에서 발표되었고, 그룹 취임식(4월)에서 2개월 내 릴리즈0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6개월 마다 OSM 릴리즈를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릴리즈0에서는 단-대-단 서비스를 적용한 작동코드와 관련한 교류를 위해 관련 위원회를 신설(MWC 2016에서 개최)함. 이번 릴리즈0의 발표는 MWC 2016에서 보여준 전시에서 몇 단계 성장한 도약으로, 이는 향후 릴리즈 시리즈 개발에 견고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6개월 내 완료되는 릴리즈1 로드맵은 멀티 VIM(가상화 인프라 매니저) 및 멀티 사이트 지원 확대 계획과 서비스 모델링 및 향상된 플랫폼 인식 리소스 분할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 릴리즈0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

☞ https://osm.etsi.org/wikipub/index.php/OSM_Release_0

☞ <http://www.etsi.org/news-events/news/1096-2016-05-news-open-source-mano-delivers-release-0-ahead-of-schedule>

- 1) 오픈소스 MANO(OSM) 이니셔티브: 2016년 2월, ETSI가 신설한 그룹으로, 허가받은 오픈소스 툴 및 작업 절차에 따라 오픈소스 MANO 스택을 개발하고 NFV 솔루션을 제공 [출처: TTA 해외ICT표준화동향 2016년 3월 셋째주]
- 2)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 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화해서 서버 단에서 구현하는 기술.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사업자 통신망 장비의 기능들을 가상화하여 네트워크의 유연성을 높이므로 하드웨어 장비를 줄일 수 있음. 설비투자(CAPEX)와 운용비(OPEX), 설치 면적, 에너지 소비량 등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SDN) 제어 영역(control plane)의 중앙 집중화와 데이터 센터의 가상화가 융합되고 있음 [출처: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 3)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 :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은 일부 유용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한 웹서비스가 다른 웹서비스를 호출하는 순서와 조건을 정의함. 즉, 오케스트레이션은 웹서비스 에이전트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상호 작용의 패턴 [출처: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 ETSI, 모바일&방송 융합 산업규격그룹(MBC ISG) 신설

2016년 5월 31일, ETSI는 '모바일 & 방송 융합(MBC, Mobile and Broadcast Convergence)' 산업규격그룹(ISG) 신설을 발표했다. ETSI의 MBC ISG는 방송사, 위성, 모바일,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 사업자, 콘텐츠 소유자 및 공급업체, 네트워크 인프라 공급업체, 소비자용 제품 제조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통합 네트워크의 배포와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 네트워크에 대한 상업 및 기술적 관점에서의 잠재적 이익과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선형 및 비선형 요소를 포함하는 미디어 전달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향후, 스펙트럼 할당에 대한 표준 개정 계획이 없음에도, 규제 프레임워크와 (또는)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주는 스펙트럼 승인 모델을 ISG 업무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지금껏 TV는 일방향(one-way) 또는 일대다(one-to-many) 전송을 통해 고정된 TV 세트로 전송하는 방식이었으나,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가정용 스크린과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선형 또는 비선형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미디어 소비 형태가 비록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네트워크 부하를 극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대다 방송 접근 레버리징과 같은 새로운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MBC ISG 의장 데이비드 헨던(David Hendon)은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하여 교환적으로 선형과 비선형 콘텐츠에 접속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거실 TV 방송 스크린은 점점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방송 및 모바일 분야 변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사업자들은 자사 비즈니스 모델의 적응이 필요함과 동시에 최적의 기술 선택에 불확실성을 파악해야 함
- MBC ISG는 후속 표준화 작업에 앞서, 방송 및 모바일 분야 기술 토론에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예정

※ MBC ISG는 2016년 6월 22~23일 영국에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임

☞ <http://www.etsi.org/news-events/news/1099-2016-05-news-mobile-and-broadcast-converge-in-new-etsi-specification-group>



■ ETSI, 2016 보안위크(Security Week) 개최

2016년 6월 13일~17일, ETSI는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에서 “2016년 ETSI 보안위크(Security Week)”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IoT 보안에 대한 토론과 ETSI IoT 표준의 “기본보안(security by default)¹⁾”을 위한 ETSI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http://www.etsi.org/news-events/news/1101-2016-06-press-etsi-security-week-2016-facing-the-iot-security-challenge>

■ ETSI, EU 무선설비규칙(RED) 관련 유럽조화표준(EN) 제정

2016년 6월 13일부터, ‘무선설비규칙(RED, Radio Equipment Directive, 2014/53/EU)’이 유럽 내 발효되었다.

2014년 5월 22일, 유럽위원회 및 유럽의회에서 무선 및 통신 단말설비에 대한 지침으로 ‘무선설비규칙(RED, 2014/53/EU)’을 발표하여, 무선설비에 대한 유럽의 단일시장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RED는 제품 마케팅에 대한 법률과 이전 지침을 정리한 것으로, 안전과 건강, 전자환경 적합성과 무선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사용 등에 대한 필수적 요구사항들을 확정함으로써, 유럽 내 무선설비의 단일 시장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전 지침(R&TTED, 1999/5/EC)과 반대로, 무선 스펙트럼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무선 수신기 요구사항(receiver requirements)에 중점을 두고 통신이나 위치 확인을 위한 무선 사용 제품에 적용한다.

< 무선설비규칙(RED, 2014/53/EU)의 주요 내용 >

- 유럽연합(EU)은 유럽시장에 무선설비 배치 및 서비스화를 위한 신규 규정들을 채택함(2014.4.16)
- EU 회원국들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신규 무선설비규칙(RED, 2014/53/EU)을 법제화하여 법률을 적용해야 함
 - * 기존 법률(RTTED or LVD/EMCD)을 따른 제조업체는 2017년 6월 17일까지 이번 규칙 요구사항 준수를 완료해야 함
- 기존 무선 & 통신 단말기 장비 지침(R&TTED) (1999/5/EC)은 신규 지침이 발효되는 날(16.6.13)부터 폐지함

2015년 8월, 유럽위원회(EC)는 ETSI와 CENELEC에 제조사들의 RED 준수 정도를 가늠하는 유럽조화표준(EN) 제정을 요청했다. 이에, ETSI는 전자환경 적합성 및 무선 스펙트럼 사항(ERM) 기술위원회(TC)의 작업으로, 현재까지 53건 제정하였고, 향후 1년 내 143건이 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유럽 제조업자들은 ETSI의 유럽조화표준(Harmonised European

1) 기본보안(security by default): IoT 장치 설치자 및 서비스 관리자가 초기 설치 단계와 고장수리 후 재설치 단계에서 보안 프로토콜들에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파라미터 값이 가장 안전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서비스 관리자나 사용자가 적용서비스의 보안 특성에 따라 제조 시 기본으로 설정된 파라미터들을 설정 및 재설정 할 수 있는 기본보안 [출처: IoT보안얼라이언스, 공동 보안 원칙 v1.0]



Standards)을 따름으로, 무선설비규칙(RED) 준수로 간주된다.

「참고 - 무선설비규칙(RED, 2014/53/EU)에서 변경 사항」

- (기존 지침[R&TTED, 1999/5/EC] 반대) RED는 시장 출시 설비 및 무선 설비의 관련 부품들에 적용함
- RED는 통신 및 무선측위를 위한 무선 전파 송신 및 수신 설비에 적용함
- 유선통신 단말기는 RED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RED 적용 무선설비는 저-전압 지침(LVD) 또는 전자환경 적합성 지침(EMCD) 적용을 받지 않음
- RED는 스펙트럼의 효과적, 효율적 사용에 중점으로, 특정 무선장비의 경우, 수신기 및 송신기 성능 시연이 필요함
- RED는 'R&TTED', '국가주파수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9kHz 이하 무선기기 등을 포함한 3000GHz 이하 주파수대에 무선설비 작동에 적용함
- RED는 위치 지정을 위한 무선전파의 전파품질 보급을 위한 무선측위 장비에 적용함
- 기존 R&TTED는 방송 TV, 라디오 수신기를 제외해왔으나, 현재는 RED 범위에 포함함

 <http://www.etsi.org/news-events/news/1103-2016-06-news-etsi-publishes-harmonised-standards-for-new-eu-radio-equipment-directive>

3. 중국

■ 중국, 과학기술 평가기준 표준화 작업반 발족

2016년 4월 27일~28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과학기술부 및 전국 과학기술 평가 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 평가기준 표준화 작업반'을 발족했다. 작업반에서는 과학기술 평가 기준 조항, 제·개정 및 연구, 홍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며, 올해 <과학기술 평가 표준화 작업 지침> 및 <과학기술 평가 기본 용어> 두 건의 초안 작업이 진행 중이다.

 http://www.gov.cn/xinwen/2016-05/13/content_5073043.htm

■ 2016년 중-영 표준화 합작위원회 협력 체결

2016년 4월 27일 ~ 28일, "제1회 중-영 합작위원회 회의"가 중국 청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중-영국의 표준화 합동위원회 설립 후 첫 회의로써, 중국 리커창 총리와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표준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하였고, 양국 경제와 무역 발전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회의에는 중국, 영국 정부 관계자와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업역총국(AQSIQ), 국제표준화기구 ISO 및 관련 기관, 기업 등의 140명이 참석했다.

본 회의는 중국과 영국 모두가 관심을 갖는 표준화 문제가 주요 논점으로, 양국 표준화 영역 중 아래 우호 협력 분야에 대해 보고했다.



- 스마트시티, 민수용 원자력, 표준 상호인정, 농업, 고속철도, 나노물질, 금융,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도시연맹 합작), 전자정부 시스템, 코드 등 10개 영역을 주제로 심층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폭넓은 합의에 도달
- 국제표준조직(ISO) 관리 및 표준 판매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등 양 국 표준화 협력 기구의 지속적 개선과 혁신에 합의

중-영 합동위원회의 주요 협력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중-영 스마트시티 및 민수용 원자력 관련 표준화 워킹그룹 설립과 실용적이고 심도 깊은 협력 이행
- ② 중-영 간 표준 상호인정에 완전한 합의 체계 완비 및 제2차 중-영 상호인정 표준 목록 공동 게시
- ③ 고속철도, 농업, 금융,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자정부 시스템, 코드 분야의 교류 촉진을 통한 표준 상호인정 지지 및 지원
- ④ 각 표준화 워킹그룹 및 관련 영역의 교류 및 합동 강화: 작업계획, 핵심 프로젝트, 실행조치 등의 제안과 업무 소통 및 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 ⑤ 국제 표준화 활동에 협력적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고 국제표준 제·개정 작업 공동 수행

☞ http://www.sac.gov.cn/sqjhzxb/xwxc/201605/t20160512_209070.htm

■ CCSA, 보안, 안전 관련 '기술 인터페이스 표준 특별 태스크포스(ST6)' 신설

2016년 5월 26일, 중국통신표준화협회(CCSA)는 기술 인터페이스 표준 특별 태스크포스(ST6)의 신설을 발표했다. ST6는 중국 보안 및 안전기관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영역의 기술 및 서비스 발전 요구사항 및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테러 조사 및 예방을 위한 기술 인터페이스 관련 연구와 그에 따른 국가 및 산업표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http://www.ccsa.org.cn/worknews/content.php3?id=3164>

■ CCSA, 제16차 광네트워크 및 FTTH 세미나 참여

2016년 6월 15~16일, '제16차 중국 광네트워크 세미나 및 중국 FTTH 포럼'이 북경에서 개최되어 전송, 시스템, 네트워크 등 광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대한 심화 토론이 이루어졌다.

- ① 전송망 및 접속망의 SDN/NFV화 추세
- ② 400G의 500km 이상 장거리 전송 문제



- ③ 광층 및 IP층 융합 추세
- ④ 초저손실 광섬유 및 빅데이터 광섬유 개구면(aperture)
- ⑤ 실리콘의 광설비 및 프로그램 작동 가능한 광설비
- ⑥ 초광대역 산업연합 프로젝트

☞ <http://www.ccsa.org.cn/worknews/content.php3?id=3165>

Ⅲ. 기타 사실 표준화 기구

■ IEEE, YANG 데이터모델 연구반(SG) 신설

2016년 5월 17일, IEEE와 IEEE 표준협회(IEEE-SA)는 'IEEE 802.3 YANG 데이터모델 연구반'을 신설했다. IEEE 802.3 YANG 데이터모델 연구반은 IEEE IC(Industry Connections) 활동 결과로 신설된 것으로, 최적 네트워크 관리 실행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IEEE 802.3 YANG 표준화*를 이끈다.

*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를 적용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IEEE 802.3의 사례 구성에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의 통일된 정의를 보장하는 활동

☞ http://standards.ieee.org/news/2016/yang_data_model_study_group.html

■ IEEE 802.19™, 무선 자동차 공존 SG 신설

2016년 5월 24일, IEEE는 802.19™ 무선 공존 WG에서 '무선 자동차 공존(Wireless Automotive Coexistence)' 연구반(SG)을 신설했음을 발표했다. 무선 공존 SG 의장인 알라 무라드(Alaa Mourad)는 IEEE 802.19 작업반이 그동안 무허가 기기의 무선 표준 간 공존을 위한 표준들을 개발해 왔으나, 커넥티드 카의 급부상으로 무선 자동차 공존에 초점을 맞춘 표준이 개발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신설 SG는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동차 환경 및 유즈케이스 등 아래 사항에 집중할 계획이다.

- ① 2.4GHz와 5GHz 주파수 대역
- ② IEEE 802.11™ 기기 간 간섭 문제
- ③ IEEE 802.11와 IEEE 802.15™/블루투스 기기 간 간섭 문제
- ④ IEEE 802.11와 IEEE 802.15/블루투스와 비(非)-IEEE 802® 무선 기술 사이의 공존

또한,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표준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신규 표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예정으로, 무선 자동차 공존과 관련한 신규 표준의 프로젝트 승인



단계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연구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tandards.ieee.org/develop/wg/WG802.19.html>

 http://standards.ieee.org/news/2016/ieee_802_19.html

■ 블루투스SIG, 차세대 무선표준 '블루투스5' 발표

2016년 6월 16일, 블루투스 SIG*은 차세대 무선 표준 '블루투스5'를 발표했다.

* 블루투스SIG(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은 근거리 무선통신 블루투스 기술의 다국적 연합체로, 애플, 에릭슨, 인텔, 레노버,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토시바 등이 주요 회원임

블루투스 SIG가 작년에 발표한 2016년 기술 로드맵의 일환으로 IoT 어플리케이션 지원에 초점을 맞춘 블루투스4.2(저전력 블루투스)는 간단한 장거리 무선 연결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네트워크화 된 IoT 기기에 사용 가능하다. 블루투스 5는 현재 블루투스 4.2보다 통신 범위가 4배 증가하고, 속도는 2배 더 빠르며, 광고 전송에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 사용자들이 비콘¹⁾ 및 위치기반 서비스를 적용하고 이용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블루투스 5의 새로운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메시 네트워킹²⁾이 전체 홈 기기, 산업 자동화, 아웃도어 사용, 의료기기, 위치기반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도움
- 또한, 비콘 기술을 통해 더 많은 광고와 내비게이션을 위한 비접속형(connectionless) 서비스 등의 신규 기능이 추가될 예정임

 <http://www.zdnet.com/article/bluetooth-5-is-coming-double-the-range-four-times-the-speed/>

1) 비콘(beacon): 주변의 일정 반경 범위(수십 m) 내에서 블루투스 4.0을 기반으로 사물의 정보(ID)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저전력 블루투스(BLE: bluetooth low energy) 기술을 활용하여 단말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를 주고받음. [출처: TTA정보통신용어사전]

2) 메시 네트워킹(mesh network): 스스로 네트워크 환경을 인지하고 통신하는 자의 통제 네트워크로, 다른 국을 향하는 모든 호출이 중계에 의하지 않고 직접 접속되는 그물(mesh) 모양의 네트워크. 통신량이 많은 비교적 소수의 국 사이에 구성될 때는 간편하고 경제적이지만, 다수의 국 사이에는 회선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비경제적일 수 있음. [출처: TTA정보통신용어사전]



IV. 전문가 활동

구분	내용
국제회의명	제29차 HL7 Working Group 회의
기간/장소	2016.05.08 ~ 2016.05.14 / 캐나다 몬트리올
주요이슈	- 참석자가 금번에 발표한 표준의 Draft Standard for Trial Use 목적으로 HL7 CIMI Repository에서 품질 관리목적으로 활용관련 IP 논의 - 후속 표준 논의(Tentative title: Functional Model for DCM tooling)
대응전략	상기 주요국의 입장에 따라 분야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향후 표준화 활동 및 대응 전략을 요약하여 기술

구분	내용
국제회의명	2016년 5월 IEEE 802 LMSC Interim
기간/장소	2016.05.16 ~ 2016.05.20 / 미국 빅아일랜드
주요이슈	- IEEE 802.15 TG8 은 근접 단말간 social networking을 지원하는 peer aware communication (PAC) 용 PHY 와 MAC을 IEEE 802.15.8 로 개발 중 - IEEE 802.15 TG12 는 상위 계층에서 WiFi 나 Ethernet처럼 IEEE 802.15.4 PHY/MAC를 사용할 수 있도록 consolidated logical link control sublayer (CLLC) 표준을 개발 중 - IEEE802.19 WG : 3GPP LAA와 802.11간 비면허대역 주파수 공유에 따른 간섭 및 coexistence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liaison 문서 작성) - IEEE802.19 TG1a : 비면허 대역에서의 이기종 무선기기간 간섭회피 및 자원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coexistence 표준 기술 개발 (표준규격 작성)
대응전략	- IEEE 802.15 TG8 표준 채택을 위해 ETRI 는 제안한 PHY 에 적합한 MAC feature 들을 통합한 표준 draft를 제안하여 letter ballot draft 에 채택 시켰으며, NICT 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IEEE 802.15 TG12 에 ETRI 에서 개발한 IEEE 802.15.4e DSME MAC을 지원할 수 있는 CLLC feature를 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위하여 표준 초기부터 scope 제안 등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구분	내용
국제회의명	IEEE 802 Wireless Interim Session
기간/장소	2016.05.16 ~ 2016.05.20 / 미국 하와이
주요이슈	• IEEE802.21에서 추진 중인 표준안 802.21.1과 802.21.m 표준의 LB(Letter Ballot) 10과 11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추가 Comment를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 • IEEE 802.15.8: Draft D1.0 완성 및 letter ballot • IEEE 802.11 (동향 파악) - IEEE 802.11ax: Specification Framework 완성 - IEEE 802.11ay: Functional requirement와 evaluation methodology - IEEE 802.11 LRLP: SG형성
대응전략	• IEEE 802.15.8 PAC에는 국내 기술이 다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D1.0 작성 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는 국내 기술이 잘 보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구분	내용
국제회의명	ISO/IEC JTC1/SC7 Plenary 회의
기간/장소	2016.05.21 ~ 2016.05.27 / 중국 쑤저우
주요이슈	• IS 26580 (피처 기반의 SSPL 자산관리) NWIP/CD 투표문서 준비 DevOps SG 활동 준비 • ISO/IEC 26557(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미국, 일본으로부터 24개의 comment가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editorial한 부분은 수용하고 scope에서 벗어난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comment disposition 함. 8월까지 base document 작성하여 FDIS ballot 제출 예정 • “Methods and tools of trustworthiness”에 대한 Study Group 활동: 중국에서 설문조사 및 향후 SW서비스, 인터넷 등 산업분야별로 타당한 적용범위의 구체화 등을 연구하여 향후 다시 study group 보고 결정
대응전략	• S0/IEC 2655x Software and Systems Product Line 표준 시리즈: 이미 개정된 ISO/IEC 26550, 26551, 26555 외에도 ISO/IEC 26553, 26554, 26556, 26557 등의 표준을 한국 주도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주관함 • ISO/IEC 20741 “Guidelines for the Evaluation and Selection of Software and System Engineering Tools” 표준 및 관련 Tool product group의 표준 시리즈에 대해 DIS ballot 진행 중인 20741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제시 및 주도권 확보 필요



구분	내용
국제회의명	제115차 MPEG 국제회의(ISO/IEC JTC 1/SC29/WG11)
기간/장소	2016.05.28 ~ 2016.06.03 / 스위스 제네바
주요이슈	• 115차 이번 MPEG회의에서 Requirement그룹과 3DG그룹에서 “ AHG on Internet of Media Thing and Wearable(IoMTW)” 국제표준문서 초안 참조결과 문서를 작성함 • 미디어 사물인터넷 표준에 대한 유즈케이스 분석 및 표준 인터페이스 범위 정의, 미디어 사물인터넷 표준 Draft of Call for Proposal 작성
대응전략	• IoMTW 국제표준기술분야에 대하여 추가적인 Use case를 정리하고 Requirement 제안요구내용을 정리하며 동시에 116차 2016년10월 회의에서 CfP를 승인하고 국제표준 초안을 계속 제출하여 2017년 1월 회의에서 국제표준 WD문서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임 • 인시그널 천승문 연구소장은 AHG 의장으로 자격으로 한국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국내외기관들과 협의하고 제안방향에 대하여 협력을 진행함 • 미디어 사물인터넷 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 및 MPEG AHG on IoMTW 참여 유도 • 이번회의에서 제안한 디엠소프트의 음량제어 유즈케이스와 KETI의 웹접근기술을 기반으로 TuC문서를 도출하여 차기회의부터 WD를 시작으로 2nd edition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

